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형통과 곤고함 (전도서 7: 14)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편 61:1-8)

시편 61 편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 10 여년을 광야로 도망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혹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구테타를 일으킴으로 인해 도망쳐 또 다시 메마른 광야로 숨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결국 포기합니다. 도망합니다. 분노하여 비난하고 싸우고, 살인 혹은 자신의 생명까지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러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골짜기에서 사단이 원하는 부정적이고 절망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분 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을 통해 고난을 받게 허락하신 것은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 있었던 다윗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조금 살만하면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 순간 내 힘과 능력으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트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마음에 자리 잡은 죄와 교만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필요합니다. 인도 하심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찬양 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장막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 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초원모임** - 1월 초원 모임 1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에 Zoom 으로 모입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17	1/24	1/31	2/07
대표기도	유영민	이화선	심영민	김영란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2,903.00	

행사 및 모임

1 월	신년감사예배	1 월 3 일 (주일)
	신년 특별새벽예배	1 월 5-7 일(화-목)
2 월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깨끗함의 축복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 안과 밖을 돌아보면서 혹시 깨진 곳이나 이상한 흔적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길에서 들어와 있기에, 또한 주차장이 넓기에 바람에 날려 온 쓰레기가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들을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날아온 쓰레기가 아니라 주변에 홍리스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고 가면서 남겨 놓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 뒤편인 부엌 뒷마당 지붕 밑이나 본당으로 바로 들어오는 지붕 밑, 그리고 쓰레기 통이 놓여 있는 지붕이 없는 사면이 벽으로 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교회 주차장 끝에 나무 아래 등이 주요 장소입니다. 그곳에 남겨진 더러운 옷이나 먹다 남긴 음식들, 빈 통조림 캔이나 쓰고 버린 휴지와 물병, 약통 등을 치울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집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참 안타깝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더러운 쓰레기를 주변에 마구 내버리는 것을 그냥 놔둘수는 없습니다. 치우지 않으면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경찰에도 연락도 하고 직접 만나 부탁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숨을 수 있는 곳 정리하고 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몇 개월이 되었지만 교회 뒤편에 교회 식당에서 사용하던 큰 케비넷과 몇가지 큰 짐들이 있었습니다. 홍리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숨을 수 있는 곳이었습디다. 그 케비넷과 짐들을 다 정리한 후로는 그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지내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주차장 끝에 있는 곳에 몸을 숨길 수 있었던 나무들과 쳐져서 내려 온 나뭇가지들을 다 정리한 후에 그곳이 눈에 환히 보이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 지내며 잠을 자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둡고, 숨을 수 있는 것을 걷어내고, 정리했을 때 깨끗함이 유지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죄가 숨을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치워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더 이상 사단이 자리 잡고 더러운 쓰레기들이 버려져 악취가 나지 않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사단과 죄가 끼어들어 자리잡지 못하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서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샬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